

게임 제목 : Stone Flower

게임 장르 : 액션 어드벤처

플랫폼 : PC

게임 엔진 : Unity

캐치프라이즈

전설속의 종족, 메두사의 능력을 활용해
퍼즐을 풀어나가는 스토리 중시 어드벤처!



01. 게임의 특징

- 1) 모두들 빠져드는 탄탄한 스토리!
- 2) 어떻게든 빠질 수 밖에 없는 개성적인 캐릭터!
- 3) 전설상의 존재, 메두사의 능력 석화를 활용한 독특한 퍼즐 디자인!
- 4) 조건에 따라 분기가 나뉘는 게임 엔딩!
- 5) 쉽지도, 그렇다고 엄청나게 어렵지도 않은 퍼즐의 레벨 디자인!
- 6) 만화를 보는 듯한 카툰풍 렌더링!
- 7) wasd로 이동 대부분의 조작은 클릭만으로 하는 간단한 조작성!

02. 세부 설정 - 스토리

이제는 세상에서 단 둘밖에 남지 않은 메두사중 하나인 칸나는 첫 번째 마을에 도착합니다. 마을 사람의 안내를 받아 유적 앞까지 도착하지만, 유적에 들어가려면 이미 이 세계에서 멸종한 꽃인 '튤립'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실의에 빠진 채 첫 번째 마을에서 시간을 보냅니다.

며칠이 지났을까 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. 돌로 된 괴물, 록몬이 나타나 마을 조각가, 샤론의 집을 습격한 것입니다. 모두가 힘을 합쳐 괴물을 해치웠지만 그 땐 이미 샤론의 집은 붕괴되어 있었고 샤론의 양 팔은 록몬에게 짓이겨져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.

현장을 구경하던 메두사는 집의 잔해에서 돌로 조각된 튤립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. 그것을 보고 희망을 되찾은 그녀는 샤론에게 다가가서 튤립을 조각 할 수 있냐며 물었고 가능하지만 이제는 못한다는 샤론의 말에 심각한 상처를 고칠 수 있는 희귀한 재료인 '이브의 머리카락' 을 사용해 그의 팔을 고쳐주었습니다... 그렇게 세계멸망을 막는 이인조는 만나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.

02. 세부 설정 – 세계관 및 캐릭터

- 세계관 : 시대배경은 중세시대로 마을 밖에는 무리를 짓지는 않는 돌로 된 괴물, 록몬이 돌아다니고 ‘튤립’이 멸종된 세계입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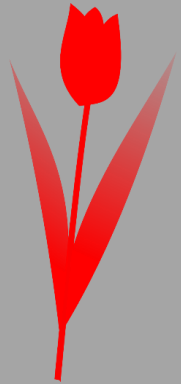
- 메인 캐릭터 :

▶ 칸나(여, 메두사) : 현재 세계에서 단 둘 남은 메두사 중 한 명. 메두사이지만 석화보다 석화 해체에 재능이 엄청난 케이스, 오히려 석화를 할 때 몸에 부담이 간다. 능력 미발동시 머리카락을 안대처럼 사용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. 이름의 유래는 꽃의 종류중 하나인 칸나로 꽃말은 존경, 정열, 해피 엔딩, 행복한 종말입니다.

▶ 샤론(남, 인간) : 어렸을 때의 기억이 없는 조각가. 조각 실력이 그다지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꽃 조각, 특히나 튤립을 조각하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. 첫 번째 마을 이후로 절찬리 칸나에게 끌려다니는 중. 이름의 유래는 rose of Sharon (무궁화)이며 꽃말은 은근, 끈기, 섬세한 아름다움이다.

02. 세부 설정 – 퍼즐

여러 색의 튤립을 이용해 유적을 기동해라!



빨간색 튤립
장치의 기동

괴물의 조종
노란색 튤립



자주색 튤립
장치의 반복기동

장치의 정지
보라색 튤립



흰색 튤립
그 자리에 벽을 생성

???
검정색 튤립

